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

“정직·배려·봉사 습관화 ‘세계 1등 조계사’ 원동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이승현 신도총회장은…1958년 전라남도 해남 어룡도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중 ·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거북선 같은 함선을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대우조선에 입사, 현대조선을 거쳐 1986년 삼성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 LCD TV’ PM 그룹장을 맡아 삼성TV를 세계 1등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현재는 스마트폰 · 자동차 등의 초소형 핵심부품을 제조 · 판매하는 인팩코리아 대표다.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미동맹재단 부회장,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조계사를 세계 1위 도량으로 만들겠습니다.”

제27대 조계사 신도총회장에 이어 제28대 회장직을 연임한 이승현 회장이 취임 당시 내건 포부다. 언뜻 과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이미 무명의 삼성TV를 세계 1위 브랜드로 만든 저력이 있다. 이제 그는 기업가로 쌓아온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를 더욱 품격 있는 도량, 신행과 나눔이 어우러지는 도량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승현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불교와 친숙했다. 대대로 신심이 깊었던 집안 어르신들 덕분이다. 해남 땅끝마을 앞바다의 작은 섬 어룡도에서 태어난 그는 할머니 손을 잡고 해남 대흥사와 미황사를 자주 찾았다.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할머니를 따라 함께 기도하곤 했지만, 사실 그게 다였다.

큰 형을 따라 부산으로 거처를 옮겨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는 불교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학업과 장래를 위한 준비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가 스스로 불교를 찾게 된 건 삼성 퇴사를 두고 깊이 고민하던 2005년 즈음이다.

당시 그는 삼성에 입사해 일본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소했던 ‘전자상거래’로 ‘전자제품 왕국’으로 불리던 일본 시장에서 LCD 액정모니터 시장을 선도했다. 이후 한국 본사로 돌아와 ‘LCD TV 사업화’를 주도, 삼성TV를 세계 1등으로 올려놨다. 그야말로 그의 존재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다.

쉴 새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며 치열하게 달려왔던 탓일까. 성공의 기쁨만큼이나 허탈함이 컸다. 누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복잡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직장생활 중 처음으로 평일에 연차를 내고 아내와 합천 해인사로 떠났다.

삼성TV 세계 1위 브랜드 만든 경험 바탕으로

조계사도 내실 다져 “언제나 찾는 도량” 발원

매일 3분 선명상…‘일체유심조’를 마음에 새겨

왜 해인사였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아는 스님이 있는 것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차를 몰았다. 해인사에 도착해 대적광전에 들어간 그는 108배를 시작했다. 생애 처음 해보는 108배였다. 60배가 넘어가자 다리가 후들거리며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조차 없었다. 힘겹게 절을 이어가던 중 가슴 속 깊이 묵혀놨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엉엉 소리를 내며 하염없이 울었다. 점차 주변 소음이 줄었고, 오직 자신과 부처님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고작 108배도 제대로 못 하는 주제에 세계 1등 TV 주역이라면서 그동안 너무 잘난 척했구나 싶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의 맛, 성취의 맛에 취해 스스로 교만했음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엔 꼭 다시 해인사를 찾아 3000배를 올리겠다고 다짐을 한 그는 곧장 지리산 하동에 있는 작은 암자 금봉암으로 향했다. 섬진강 하구에 다다랐을 땐 문득 벅찬 감정이 올라와 지리산 중턱 갓길에 차를 세웠다.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쌓여 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금봉암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새벽 3시, 새벽예불에 참여했다. 스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석가모니불 앞에서 정근을 했는데 또다시 눈물이 터졌다. “울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의 물음에 스님은 예불문과 경전을 건네며 “그저 오늘처럼, 오늘 같은 마음으로 하면 된다”고 일러줬다.

그렇게 그는 본격적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기 수행을 이어갔다. 집안 한 공간을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하고, 매일 금봉암 때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렸다. 금강경을 읽고 사경도 했다. 108배도 빼놓을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을 2시간 동안 꼬박 기도하고 회사에 출근했다.

“회사에 가니 동료가 얼굴 좋아 보인다며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08배를 권유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108배를 하면 분명 저처럼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해인사에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삼성을 퇴사했다. 이 결단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2007년 대만 전자부품회사 인팩테크놀로지의 한국법인 ‘인팩코리아’를 설립했다. 인팩코리아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TV, 자동차 등의 핵심부품인 수동소자류와 GPS안테나를 제조한다. 품질관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삼성전자와 LG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인팩코리아를 현재 ‘GPS안테나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난이 지속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불거졌고, 직원들의 월급을 맞추는 것도 빠듯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간의 끊임없는 수행정진이 버팀목으로 자리잡았다. 그가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있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부처님 가르침도 중요한 순간마다 중심을 잡아줬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믿음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심어줬고, 결국 인팩코리아는 GPS안테나 시장에서 성장가도를 달리게 됐다. 그는 지금도 사무실 한 켠에 일각 스님이 선물한 일체유심조 액자를 걸어 두고, 매일 아침 마음을 다잡는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그는 불교 발전에 일조하고자 2023년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제27대 신도총회장을 맡았다. 기업인과 신도회장의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세상을 보다 행복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지향점만은 맞닿아있었다. 조계사를 ‘세계 1등 사찰’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는 단순히 규모나 사찰의 웅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계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 그에 걸맞는 외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조계사에 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삶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자연스럽게 발길이 닿는 도량이길 바랍니다.”

우선 그는 조계사의 환경 개선으로 외형적 변화를 이끌었다. 주지스님을 도와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대웅전에 의자를 설치했고, 주차장을 정비해 편리성을 강화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쉼터 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국숫집 ‘승소’를 베이커리 가게로 재오픈, 친근하게 불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여했다.

선명상 대중화에도 힘썼다. 그는 불자들에게 선명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안한 ‘5초 멈춤’ 선명상을 적극 추천했다.

“저도 요즘 아침마다 3분 정도 선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잡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인내심이 많이 생겨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분이 길다면 5초 만이라도 멈춰보세요. 집착하는 한순간, 화를 내는 한순간, 그 한순간을 참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서울 탑골공원 옆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눔과 여름철 어린이 수영장 운영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했다. 게다가 34개 대학 불교동아리 회장들을 초청해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며 젊은 세대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2025년 1월 제28대 회장으로 다시 2년의 임기를 시작한 그는 조계사 성역화 불사를 추진하는 한편 신도들의 내면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말과 행동이 모범이 되고, 다른 사찰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화합하는 신행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세계 1등 조계사’에 다가갈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항상 정직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봉사하는 삶이 습관이 되면, 사찰에서도 일상에서도 조화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을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만병통치약과도 같습니다. 신도님들께서도 정직, 배려, 봉사의 마음가짐으로 함께 조계사를 가꾸어나갑시다.”

기업가로 성공을 거둔 이승현 회장의 여정은 이제 조계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조계사 마당에 설치된 물놀이장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이승현 회장.



지난해 12월 31일 봉행된 제28대 조계사 신도총회장 취임법회.



이승현 회장의 사무실 한 켠에 ‘일체유심조’ 액자가 걸려 있다.



조계사 만발공양간에서 급식봉사에 참여한 모습.